2021년 대표이사 준법서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키 어려운 불안함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해 경영환경 또한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재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던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했고, 공정위는 방산부문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기업경영의 전 분야에서 준법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패방지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져 임직원 개개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사업적으로는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산업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사람과 사회, 환경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장 중심 준법경영'**을 통해 사전적, 예방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준법협의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여, 현장에서 준법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둘째, 임직원 개개인이 투철하게 준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1년여 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 우리 회사의 경영활동에 주목하는 업계의 시선은 늘어났고, 기대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올 해도 쉽지 않은 1년이 되겠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도전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정직한 정도의 길만을 고집할 때, 고객과 투자자들도 더 큰 신뢰로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회사에서 단 한 건의 위법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사랑받는 한화시스템을 위해 모두가 뜻 깊은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대 표 이 사 김 연 철